



최 봉 익 | 공동체 모닥 대표
(modak-ch@hanmail.net)

보성강 3백리

저기 감히 함부로 못하는 제암산
 갈길 잠시 멈추고 서있는 사자산
 여기 온통 철쭉으로 덮인 일립산
 남해와 근린(近隣)이어서 알게다.
 산들마다 용(龍)이 되어 흐른다.
 물길답사 일행 '있다'
 보성웅치 용추(龍湫)에 깃들다.
 3백리 보성강은 섬진강의 긴 지류다.
 일립산 서사면서 발원하여
 곡신불사(谷神不死) 용추가 원심이니
 당연히 원심유장(源深流長)이다.
 보성강은 길게 멀게 흐를 채비다.
 발원지 일립산 철쭉 때문일까
 처음은 화강천(花江) 이름으로 흐르다가,
 이웃 장흥(長興) 땅으로 잠시 들어가
 장동을 지나 장평들녘을 감돌면서
 뗏목에서 발원한 봉림물을 보태고서
 보성강이란 이름표를 붙이고
 들독문화 노동 땅 보성으로 되돌아와
 두 물 광곡천과 노동천을 합류하고서
 비로소 보성강은 강의 면모를 보인다.

상선약수(上善若水),
 흐르는 물은 곧잘 군자로 비유된다.
 천류불식(川流不息) 보성강은
 광곡에서 한 모퉁이 바삐 돌아
 미륵세상을 꿈꾸는 미력(彌力)으로 접어들어
 성인군자 정자(程子)강이라는 아호를 얻는다.
 그 옛날 여기가 마한 땅이었다고
 명불허전(名不虛傳) 웅기문화,
 결국 유명한 명품 미력웅기를 빛낸다.
 보성에서 제일 명촌 도개를 굽이돌아
 넓은 봇들 적시며 유유히 흐르는 정자강
 건너 마을 송림은 왜가리 서식지로 유명하다.
 대룡(大龍)의 긴 산자락, 제방을 삼고
 누구네 고향마을 살내살내 용지동 앞내는
 강폭이 넓어져 강태공들이 즐겨 찾는다.
 석호산 아래 백제군사 주둔지였다는 둔터,
 그 건너 대실에 이르러서 보성강은
 흐르는 강이 아니고, 아예 넓은 호수다.
 일제 강점기에 축조된 보성강 다목적댐이다.
 댐 목적 따라, 댐 기능 따라 강물 일부는
 유역이 변경되어 침동(針洞) 바늘굴 따라
 용산너머로 흘러가 낙차로 전기를 일으키고,

득량천이란 이름으로 아래로 더 내려가서는
예당, 조성에 걸친 넓은 간척지를 적시며
물을 좋아하는 벼들의 광합성을 돕는다.
맛좋은 갯쌀 대한민국 유명브랜드,
득량(得糧), 지명의 글자 뜻 그대로
양질의 예당 쌀을 생산한다.

군자의 행적을 천류불식(川流不息)이라 했다.
담 아래 석들을 한 바퀴 휘감은 보성강은
잠시 숨을 고른 후 서서히 복류하며
선돌마을 모래밭에 장송림(長松林)을 일구니,
겉백이 낳은 소리꾼, 국창 조상현은
앞산 석호(石虎), 뒷산 초암(草庵) 몰랭이까지
들려라, 들려라, 춘하추동 사철가를 부른다.
담 아래는 수량이 줄고 강폭이 좁아지자
보성강은 군자지도(君子之道)를 연출한다.
울어(粟於), 대추와 밤중 밤은 여기란다.
사철가의 여운 때문인지 물 흐름이 지그재그다.
새을(乙)자 물 돌이가 반복, 또 반복이니
유려함이 명필대가의 행서요 초서가 아닌가.
참샘이 언저리서 금전을 보태며 떠올린 명필
고향산천 흐름에서 필법을 깨우친 것 아닐까.
탈속웅필(脫俗雄筆) 설주(雪舟)의 잔영이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에서 내려온 울어천을
밤갯에서 보태고 복류를 계속 복내에 이른다.
용전, 원봉 넓은 들녘이 수몰로 자취를 감추고
대신 저수지다. 호수다. 이게 주암호다.
이름도 익숙한 일아리제서 발원한 일봉천이
당촌마을 옆구리로 흘러들어 수량을 늘리고
대한독립만세, 독립문 서재필의 문덕(文德)에서
무등산 남사면에서 발원한 동복천과 합류하여
양가랭이제를 끼고 북동쪽으로 흐르고 흘러서
순천 땅 송광에서 주암호의 새로운 원심,
생명수의 대형저수지 상수원이 되어서

광주와 전남 일원에 생명수를 공급한다.

군자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보성강은 처음 보성강 댐에서 물을 나누더니
또다시 수량 전량을 주암호에 남기고
흘가분하게 댐 아래로 흘러가면서
남해고속도로를 보성강교로 빨리 보내고
아미산 산자락을 감싸고 잠시 복류하며
석곡에서 대황강(大荒)이란 별호를 얻고
국사봉에서 발원한 온수천과
주부산에서 발원한 죽곡천과 차례로 만나,
군데군데 물 바위 틈새마다
참개와 쏘가리 서식처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나서 경승 좋은 오곡 압록(鴨綠)에서
대한민국 은빛 물길 섬진강과 합류하며
보성강 3백리 긴 여정을 마감한다.
이후로 보성강은 한살림 섬진강이 되어서
나이든 구레 땅 어느 어르신 말씀 그대로
'자지리(左 智異), 우배군(右 白雲)이라'
왼쪽 지리산, 오른쪽 백운산자락을 적시며
좋은 동네, 좋은 세상 만들고자
화개장터, 하동포구 지나 남해로 흘러가
쇠귀의 소망대로 하방연대(下方連帶)한다. 🌊